

언론 사람

인터뷰

안수현 국립서울현충원장

미디어트렌드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옛 그림과 차 한잔

녹음 아래 詩 읊고, 잔 기울이니
이 아니 유쾌할까

2017
Vol.204

6





부산 국제시장엔 ‘꽃분이네’도 있고 ‘청년몰609’도 있다. 2016년 11월에 문을 열었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만들었다. 이곳엔 먹을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체험할 것도 있으며 사고 싶은 것도 있다. 어느 가게든 아이디어나 손맛이 은근히 배어있어서 좋다. 같이 갔던 일행들이 주섬주섬 지갑을 열었다.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나는 매장 출입구 바로 왼쪽 ‘1968 추억의 전시회’에 걸려있는 소피 마르소 같은 그 옛날 ‘책받침아이돌’의 사진을 한동안 보고 있었다. 엄마를 따라온 한 꼬마가 초등학교 앞에 있음직한 게임기 앞에서 “타다다닥” 초절정 고수의 동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스트리트 파이트’류의 게임 같았다. 한동안 구경하다 화면을 보니 ‘INSERT COIN’ 자막이 보였다. 꼬마는 동전을 넣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바늘 없는 낚시를 했다는 강태공이 떠올랐다. 저 꼬마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이윽고 엄마가 불렀고 꼬마는 자리를 떴다.

CONTENTS

2017 June Vol.204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02 클로즈업

04 인터뷰

안수현 국립서울현충원장

06 미디어트렌드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07 언론중재위원회 NOW

세계 저널리즘의 현안 : 가짜뉴스, SNS와 시민저널리즘

08 심리학브런치

내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09 언론법 이모저모

포토라인에 서다

10 세상읽기

우리가 언론에 바라는 것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감정 온도를 식혀야 설득이 된다

12 옛 그림과 차 한잔

녹음 아래 詩 읊고, 잔 기울이니 이 아니 유쾌할까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웹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실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삶과 죽음의 기록, 국립서울현충원



안수현

국립서울현충원장

2013. 2 ~ 2014. 3 국방부 건설관리과장
2014. 4 ~ 2015. 2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2015. 2 ~ 2017. 1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2017. 2 ~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장

어쩌면 우리는
빛을 지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는
누군가의 삶과 맞바꾼 셈이니 말이다.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면
그 사실이 또렷해진다.
싱그러운 신록이 짙어지는 유월,
안수현 원장에게서
험난한 역사 속에서 빛났던
아름다운 용기와 희생에 대해,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선물 받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들어보았다.

Q | 국립서울현충원 소개 좀 해주세요. 국립서울현충원은 언제 생겼고 또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요?

A | 국립서울현충원은 조국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시는 민족의 성역으로 국난을 극복해 온 민족의 얼과 호국의 의지, 나라사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6·25전쟁 중 전사·순직하신 국군장병들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휴전 2년 후인 1955년 7월 국군묘지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항일 독립운동과 국가발전에 공헌

하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안장하기 위해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1996년 국립현충원,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44만㎡(약 44만평)으로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17만 7천여 명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Q |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많은 분들 가운데 국민들이 꼭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A | 현충원에는 특이한 묘비가 하나 있는데 '이

름 없는 묘비', 바로 김수영 소위의 묘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6·25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인 경북 안강지구의 도읍산 전투를 수행했던 황규만 소위(예비역 육군준장)가 치열한 전투 중 전사한 김수영 소위의 시신을 가매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수습하였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게 되자 육군참모총장에게 청원, 결국 승인을 받아 1964년 '김00 소위'라는 묘비 이름으로 국립서울현충원 54번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김 소위의 신원확인이 되었으나, 전쟁의 아픔과 황규만 장군의 전우애를 후대에 길이 계승하기 위해 묘비는 이름이 없는 채로 두고 추모비에만 이름을 새겨 두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묘비 중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충원에는 6·25전쟁 중에 19살의 꽃다운 나이로 전쟁터에 나가 장렬히 생을 마감한 두 형제의 묘소와 아버지와 아들이 공군이라는 한길을 걸어 조국의 영광을 지키다 돌아가신 부자의 묘 등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Q | 원장님께서 지난 2월, 국립서울현충원의 20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국방부에서 37년 간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요?

A | 1980년 공직에 들어와 37년 간 국방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로 군사시설 건설 분야를 담당하였으며, 국방부 건설관리과장, 시설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의 보직을 맡아왔습니다. 건설 분야 업무 추진 시 부대 창설 및 기지 건설 등 방위력 증강에 기여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에 3년간 파견 근무하면서 방대한 이전 사업의 실무를 관장하며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Q | 국립서울현충원장직은 원장님께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A | 우선 2020년 하반기 만장에 대비하여 제2충혼당 건립 예산을 반영, 안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현충탑 헌시비, 충성분수대, 충열대 등 노후화된 상징조형물을 정비하고, 현충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시민과 나누고자 진행하고 있는 외곽담장 개선공사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넓은 사진전시관 개편사업을 통해 사진 위주의 평면적 전시에서 벗어나 현충원에 적합한 체험과 참여형 전시관으로 바뀌어 호국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국립묘지의 기본 가치인 경건성과 엄숙함을 유지하며 참배, 안장 업무 등 고유임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즉, 경건성과 개방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현충원 조성을 통해 한국적 분위기가 느껴지면서도 미국의 알링턴, 프랑스의 팜데옹 등 선진국의 국립묘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Q | 대통령은 물론 정당 대표자, 대선 후보들이 중대한 시책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현충원 참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A | 장소의 상징적 의미로 본다면,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선열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선열들이 지켜낸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더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참혹했던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과 같은 불행한 국난이 다시는 없도록 지도자로서 자세를 다지는 결심의 공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도자들의 참배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단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Q. 일본 정치인의 신사 참배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현충원 참배와 달리 국제적 논란이 되곤 합니다. 올바른 역사적 시각에서 우리가 자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의 저력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강대국의 침략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의병과 같은 일반 국민이 일어나 싸웠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하며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와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낸 당시의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이 자행했던 침략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신격화하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의 입장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과 우리의 역사 인식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Q | 6월은 현충일과 6·25가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호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호국보훈의 달 제정의 참된 의미로는 첫째,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를 드리고, 둘째, 이분들의 명예와 위훈을 높임과 동시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셋째, 두 번 다시 과거의 열악한 국가방위와 튼튼하지 못한 안보태세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반성의 시기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를 하고 호국정신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밑거름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애국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인터뷰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일정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리 엄아영 (에디터)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저는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늘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경청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그들이 연관된 것을 확인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날 보수주의자들이 제 페이스북 피드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스북이 제가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지 살펴보고 있었고, 그것은 실제로 제가 보수적 성향의 친구들보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링크를 더 많이 클릭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페이스북은 그것을 편집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죠.”

- 엘리 프레이저의 테드 강연 <온라인 '필터버블'을 주의하세요> 중

대부분의 정보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된다. 흔히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터넷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흘러 다니다고 있다. 개인의 소셜미디어만 해도 정보량이 어마어마하다. 수많은 친구들, 언론사, 유명인, 기업 계정 등에서 한두 개씩만 소식을 올려도 금세 수백 개가 된다.

이 모든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양 자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콘텐츠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불쾌한 소식도 많아진다. 사용자가 싫어할 만한 콘텐츠가 자주 보일수록 사용자는 썩 유쾌하지 않은 플랫폼 사용 경험을 갖게 된다. 이래저래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자의 기준들을 활용해서 콘텐츠 노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어떤 콘텐츠는 위로 올리고, 어떤 콘텐츠는 아예 사용자가 못 보게 화면에서 치워버리기도 한다. 플랫폼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의 호불호'다. 사용자가 좋아할 법한 콘텐츠, 자주 보고 싶어할 것 같은 콘텐츠는 올리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는 치우는 방식이다.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편리하다.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차적이다. 개인화된 맞춤 추천도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술이다. 대중의 취향보다는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사용자의 입맛에도 맞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플랫폼이 사실상의 뉴스편집권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비껴가기도 좋다. 언론사의 문제 제기엔 '사용자가 좋아하는 걸 보여준다는데 뭐가 잘못이냐'라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현실이야 어쨌든, '로봇이 사용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추천한다는 사실

은 굉장히 공정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비슷한 그룹의 관심사에 기반해 추천하는 기술은 '필터버블'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필터버블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부작용이다.

이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 뉴스 콘텐츠가 섞이면 문제가 생긴다.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보고 싶은 뉴스만 보면 결국 정치·사회적인 문제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강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은 좀 더 입맛에 맞는 기사물만 가지고 온다. 비단 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콘텐츠 및 의견도 모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여론을 잘못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혀 잘못된 소식이 확산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도 생긴다. 이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다.

필터버블은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만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필터버블은 사회와 정치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오작동에 기여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서비스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을 얼마나 접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며 필터버블 현상을 우려했다.

필터버블이라는 단어를 만든 엘리 프레이저는 이 현상을 가져온 알고리즘에 적용된 규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터버블의 문제는 기술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세계 저널리즘의 현안 : 가짜뉴스, SNS와 시민저널리즘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회 미디어 & 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MEDCOM)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권혁중 중재부장(서울제8중재부), 권순택 중재위원(서울제2중재부), 양승목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김문성 교육콘텐츠팀 차장, 권영민 조사팀 조사관이 참석하여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최신 경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돌아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 : 정보, 설득, 홍보, 영향력(Information, Persuasion, Relationships and Power : The Many Functions of Media)>이라는 주제 아래,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널리즘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고 갔다. 여러 주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가 이목을 끌었다.

중국 전매대학 펑페이 자오 교수는 2016년 미 대선기간 동안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확산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자오는 이번 대선의 주요 특징을 ① 시민의 정치적 담론을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 ② 시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권한을 부여한 소셜미디어, ③ 혼란스럽고 선정적인 가짜뉴스의 속성, ④ 페이스북 페이지 뷰 또는 좋아요(like) 수의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⑤ 인터넷 검열의 어려움, ⑥ 후보자의 스캔들로 유권자의 불신이 높았던 선거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오는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기존 성향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반향실(反響室·echo chamber)'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저널리즘 관점에서 페이스북이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필리핀 바기오대학의 안곤 교수는 표현의 자유에는 강력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독자가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정보를 올바르게 식별하는 안목이 있어야만 비로소 시민저널리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문성 차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디어 관련 현안과 저널리즘의 방향성 및 경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실태와 미디어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제가 너무 다양해 깊이있는 수준의 논의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으며, 이론이 배제된 실무 중심 논의에 집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권영민 조사관은 컨퍼런스 주제가 대부분 저널리즘에 기초한 탓에 뉴스소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구제 같은 법률적 논의로 확장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미디어의 영향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뒤따를 것이며 언론조정중재제도가 그러한 연구의 중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기회는 해외 언론학자 및 전문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각국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동향과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 향후 지속적인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한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녀석입니다. 자율신경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하고, 땀이 나는 것 등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절반만 소화해야지” 또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볼까”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자율신경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정확히 말하자면 뇌의 시스템 중에서 훨씬 더 본능적이고, 빠르고, 스스로 돌아가는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 부릅니다.

자율신경은 두 쌍으로 움직입니다. 우선 긴장이나 불안 같은, 이른바 몸을 전투태세로 만드는 것이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열감, 두근거림, 식은땀 등 전체적으로 몸이 흥분상태가 되는 반면, 오히려 소화기관은 활동이 줄어듭니다. 생존을 위해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소화시킬 겨를이 없겠죠. 이러한 교감신경과 균형을 이루면서 반대的作用을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먹거나, 자거나, 일하거나, 노는 상황 등에서 두 가지 자율신경의 전환과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려 하면 교감신경은 힘을 받습니다.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소변이 마렵거나, 불안함을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이런 교감신경의 작용과 관련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긴장된 마음에 “떨면 안 돼”라고 마음먹지만, 오히려 가슴이 더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그칠수록 더 제멋대로 구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신경과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불안해하지 말라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시험을 앞뒀으니깐 당연히 불안하겠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당연히 떨릴 수 있어’라며 내 마음을 인정해주면 오히려 불안함은 줄어듭니다.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머리로 들어주세요. 그래야 몸도 어느 정도껏 하고 안정을 찾습니다. 자꾸 누르려고만 하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더욱 활개를 치는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 건강의 문제는 종종 더 심해집니다.

불면을 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들다 보니, 자꾸만 잠에게 제발 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은 더 달아납니다. 안달이 나 계속 전화를 하면 오히려 더 전화를 안 받고 애태우는 연인과 같습니다. “네가 오든 말든”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운동을 하거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과의 밀고 당기기에서 안 와도 상관없다는 쿨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애쓰는 수험생들은 잠이 쏟아 집니다.

공황발작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그 경험이 너무 무서웠기에, 공황이 다시 오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기불안으로 인해 긴장도가 높아져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공황은 내 곁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공황은 오지 않을 거야. 괜찮아.” 듣기 좋은 말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이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공황이 온다고 한들 죽는 것도 아니고 미치는 것도 아니니 오면 어쩌나. 올 테면 와봐!” 라고 해야 오히려 꼬리를 내립니다.

의미치료(logotherapy)에서는 이렇게 골치 아픈 자율신경을 다루기 위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어보거나,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려 하지 말고, 내 몸이 말하는 바를 잘 들어보세요. 내 몸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율신경과의 밀당에서 고수가 되어 편해질 것입니다.





포토라인에 서다



포토월, 포토존, 포토라인. 그곳에 서면 어김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진다. 모두 이름도, 상황도 엇비슷한 장소들이다. 그런데 그곳에 선다는 것의 의미는 같지 않다. 포토월, 포토존에 서는 사람들은 주로 연예인이거나 유명인들이다. 그런 점에서 각종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포토월, 포토존에 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포토라인은 주로 검찰청사 입구에 설치된다. <빅카인즈>에서 ‘포토라인’으로 기사 검색을 해보면, 공인의 이름과 함께 ‘검찰 조사’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 등이 연관어로 나온다. 공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할 때면 일종의 통과례처럼 그 앞에 서야만 한다.

지난 1993년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차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찍으려다가 카메라에 찍혀 정 회장의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취재경쟁이 치열하다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포토라인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랬던 포토라인이 현재는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제하는 수단으로 진화,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바닥에 노란색 세모로 표시되는 포토라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포토라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자의 의지, 그리고 그곳에 서는 사람의 의사다. 검찰청에 출석할 사람들이 정부 당국자라든가, 정치인이라면 포토라인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포토라인은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그 밖의 사람들에게 포토라인은 뜬금없다. 과연 지금까지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최근 법원에서 포토라인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직후였던 2014년 5월, 구원파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A가 수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A는 출입구로 들어가기 전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A와 동행하고 있었던 B와 C였다. 이들은 조사 대상자도 아니었고 구원파의 핵심 인물도 아니었지만 A와 동행했

다는 이유로 카메라에 찍혔고 뉴스에도 나갔다. B와 C는 초상권 침해로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와 C의 청구를 일부 인용(인용액 100만원)하며 포토라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포토라인은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치된 것인바, A의 동행인인 B로서는 검찰청에 들어가기 위하여 포토라인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는 포토라인 앞에서는 A로부터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 있었고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점 …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취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101939 판결)

초상권 동의를 얻는 방식은 ‘명시적동의’ ‘묵시적동의’ ‘동의의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동의의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다. 명시적동의가 말이나 글로 표시된, 비교적 명확히 표시된 당사자 의사라면 묵시적동의에서 당사자 의사는 늘 모호하다. 상대방의 의사가 모호할 때 우리에게서는 내게 유리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생각인 경우가 많다. 포토라인이 그러한 하나의 사례다.

포토라인은 그저 바닥에 표시된 선이다. 이 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행동 속에 숨겨진 사람의 의사다. 꼭 포토라인이 아니더라도 취재현장에서 행동 속에 숨겨진 취재원의 의사를 헤아려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언론에 바라는 것

지난해 11월 하순, 최순실게이트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을 무렵,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리는 언론의 표적이 됐다. 하필 그때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대한체육회 <2016년 스포츠영웅>으로 뽑혀 마스크를 댔다. 그런데 한 지상파 방송사 저녁 뉴스에서 “김연아가 지난해(2015년)에도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했는데 김종 전 차관에게 밋보여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순간 스포츠영웅 선정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어이가 없었다. 분명 오보였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 스포츠영웅 수상대상은 50세 이상으로 한정되었다. 2012년 1회 수상자는 손기정(마라톤), 김성집(역도)이었고 2013년 2회 수상자는 서윤복(마라톤)이었으며 2014년 3회 수상자는 민관식(스포츠행정), 장창선(레슬링), 2015년 4회 수상자는 김운용(스포츠행정), 박신자(농구), 양정모(레슬링) 등이었다. 2016년부터 연령제한이 없어 김연아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선정기준이 바뀌었는데도 해당 방송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이 잘못된 것처럼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물론 기준 시행 5년도 안 돼 바뀌 버린 대한체육회의 안목이나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한편, 김연아가 2015년 광복절 행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뿌리쳐 김 전 차관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나 정작 김연아 본인은 작년 11월 2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6년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빗발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느낌은 없었다. 보도를 통해 알기 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최근 일이 부풀려지는 상황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연아는 대통령의 손을 뿌리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제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어른 손을 뿌리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연아의 이 같은 해명에도 해당 언론사들은 어디 하나 사과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이제 와서 구속 중인 김 전 차관을 옹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가 재직 3년간 ‘스포츠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체육계를 쥐락펴락했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려 영어의 몸이 된 그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이는 언론의 태도 역시 비난의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과 승마협회의 부적절한 행태도 기자들이 제대로 대응했다라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고 뒷전에서 온갖 부정을 자행했던 김 전 차관의 독선을 조금이라도 견제했다면 차관에 이어 장관까지 구속되는 문체부 초유의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체부의 일방통행에도 체육기자들은 충실한 전달자 역할만 했다. 대부분 언론이 그들의 본분이라 할 비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체육기자 선배로서, 또 40년 가까이 스포츠 언론에 몸담아온 언론인으로서 최순실게이트가 후배 체육기자들에게 기자 본연의 임무인 비판기능을 되살리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감정 온도[°]를 식혀야 설득이 된다

영화 <분노>로 보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단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인간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화났을 때와 차분할 때는 하나의 물체라도 똑같이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물체로 보이거나 상당히 다른 물체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월 개봉한 영화 <분노>를 통해 인간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 <분노>에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개되면서 저마다의 ‘분노’와 ‘슬픔’이 표현되지요. 살인사건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포, 의심, 그리고 죄책감 등 극단으로 치닫는 부정적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 그냥 다 짜증나서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 그런 걸 생각하니까 웬지 분해졌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님 가방에 화풀이한 거야. 미안, 잘못했어.

테츠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뭔데요?

신고 나 말이야. 이즈미한테 있었던 일. 그날 밤 이즈미한테 있었던 일 알고 있어.



영화 속 살인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인 신고는 그에게 한 치의 의심 없이 다가왔던 소녀 이즈미가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 일하던 가게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다 결국 원래 숨어 살던 섬으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가끔 위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곤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면 화가 나고 분노하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내 말을 듣게 하려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거나 무식한 사람으로 몰고 간다면 상대방이 느낄 ‘분노’라는 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 넌 나의 어디를 보고 믿어 준거야?

테츠야 내 편이 되어준다고 했잖아.
(중략)

신고 웃긴다. 너 진짜 웃긴 거 알지?

테츠야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거짓말이라고 하라고!!!

신고 동정하는 척 하는건 말이야, 하나도 필요 없어. (물구나 무를 서며) 나는 머리에 피가 몰리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아서 말이야.

인간이 분노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배신’입니다. 테츠야는 믿었던 신고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상처를 입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되지요. 부정적 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통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는 행동은 신뢰를 잃게 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지요.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나를 믿고 있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대화 상대방이 이미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분노는 그것을 표출할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치고 있는 상대방에게 ‘마음껏 내리치라’라고 한다면 ‘분노’를 키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 상대방의 ‘분노’를 눈치챌 순간, 자연스럽게 대화의 소재를 바꾸거나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면서 그 감정의 온도를 식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감정을 잘 다루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이 주장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분노하게 했다면 이미 그 대화는 실패한 것이다.”

녹음 아래 詩 읊고, 잔 기울이니 이 아니 유쾌할까



이인문 <누각아집도>, 1820, 종이에 수묵담채, 86.3x57.6cm 국립중앙박물관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한 자리를 기록하는 게 요즘은 참 수월해졌지요.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면 되니 말입니다. 그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런저런 소회를 덧붙이는 게 일상이 됐고요. 그렇다면 옛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그림으로 남겼답니다. 조선 중기에는 관료들의 계(契) 모임을 그린 '계회도'가 유행했습니다. 화가를 불러 모임 장면을 그리게 한 다음, 회합의 명칭과 참석자 이름을 적어 넣었지요. 아,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 인원수만큼 여러 점을 똑같이 제작해 나눠 가졌습니다.

세도가들의 계 모임에는 숨쉴 좋은 화가가 불러 가, 멋들어진 산수화로 답했다는군요. 이런 그림을 가져와 사랑방에 붙여놓고 음미했다니 선조들, 꽤나 풍류가 있었네요.

조선 후기에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회도'가 많이 제작됐습니다. 풍광 좋은 곳에서 문사들이 시서화를 즐기는 모임, 즉 '아회'(雅會)를 산수화로 담아내곤 했지요. 유쾌했던 모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아회도 중에는 이인문(1745~1821)의 <누각아집도>가 가장 유명합니다. 조선 후기 아회도(또는 아집도(雅集圖))를 대표하는 이 그림은 산과 바위, 계곡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가운데 화면 중앙에 누각을 배치해 주제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세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격조 있게 표현한 그림이지요.

이인문은 <누각아집도>에서 깎아지른 바위산을 부벽준 기법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부벽준은 붓을 옆으로 뉘어, 도끼로 켄 나무 자국처럼 산이며 절벽을 그리는 기법이지요. 반면에 푸른 솔잎은 하나하나 길고 섬세하게 그려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누각을 감싸며 화면을 휘돌아 내리는 시냇물이 더없이 싱그럽네요. 팔팔팔 물소리가 들릴 듯합니다. 이런 기막힌 절경은 현실에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적 풍경인 셈이지요. 화가는 당시 유행하던 실경산수 대신, 관념산수를 통해 품격을 드러내려 했네요.

그렇다면 절경 속에서 시를 읊고, 거문고를 뜯으며 환담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다행히 그림 상단의 화제(畫題)에 참가자들의 신상정보가 들어있군요. 4명이 주인공인데 살펴볼까요?

고송 몇 그루에 흐르는 물이 그 가운데를 지나니 / 푸르고 차갑구나 골짜기 가득히 바람이 일어 /
 탁 트인 누각 창에 아지랑이 영롱한 사이에 / 책상에 기대어 책을 펴는 이는 도인이요 /
 손으로 그림종이를 잡고 우두커니 보는 이는 수월일세 / 거문고를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 이은 주경이요 /
 걸상에 걸터앉아 길게 읊조리는 이는 영수이니 / 네 사람은 즉림칠현에 필적할 만하구나

화제 말미에 ‘76세 늙은 도인(道人)이 그렸다’라고 돼 있으니 책상에 앉은 이가 이인문이네요. 수월(水月)은 문인화가 임희지, 주경은 거문고에 능했던 김영면입니다. 이인문은 인생의 회로애락을 두루 겪은 말년에 <누각아집도>를 그렸지요. 삶에 있어 진정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헤아리게 된 화가의 붓은 원숙하고 조화롭습니다.

도화서 화원이었던 이인문은 산수는 물론이고, 도석인물(道釋人物)*, 영모(翎毛)** 등 여러 분야에서 기량이 출중했습니다. 그가 국왕 정조의 비전을 담아내며 그린 <강산무진도>는 불세출의 걸작이지요. 이인문은 소나무를 씩 잘 그렸답니다. 그림에서 솔향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동갑내기 화원이었던 김홍도(1745~?)도 이인문의 소나무는 인정했으니까요. 둘은 꽤나 가까웠나 봅니다. 이인문의 그림에 김홍도가 화제를 써준 예가 많은 걸 보면 말이지요.

이인문은 ‘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이라는 호에서도 알 수 있듯 솔숲 아래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을 즐겨 그렸습니다. <송하한담도> <송계한담도>가 유명하지요. 그의 그림에선 소나무, 바위, 계곡, 바람이 서로 뻗대지 않고 잘 어우러집니다. 위창 오세창은 “이인문은 마른 붓으로 산을 그리고, 젖은 먹으로 나무를 그려서 밝고 어둡고 향하고 등지는 형상을 그리는 데 있어 묘한 법을 얻었다”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고송(古松)의 높고 굵은 줄기와 푸른 잎들이 힘차게 꿈틀대는 그림은 신필(神筆)이라 일컬을만하지요.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자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인문은 <누각아집도>를 그리기 30년 전에 <송석원시회도>를 그렸습니다. 송석원은 인왕산 동쪽 기슭, 지금의 옥인동에 있던 정원입니다. 당시 학식 높은 중인들은 송석원 시사(詩社)를 만들어 시문을 읊었지요. 양반 관료들도 이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답니다. 중인들의 자부심을 중인 출신의 화가 이인문은 당당하게 담아냈지요.

단원 김홍도 또한 <송석원시사야연도>를 그렸는데요, 달밤의 모임을 그린 게 차이점입니다. 단원은 비 갠 여름밤, 축축하게 물기를 머금은 산하와 둥근달을 운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선비들의 흰 도포에 달빛이 반사돼 오묘한 정취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최고의 궁중화가들 돌씩이나 불러 시회를 그리게 한 걸 보면 송석원의 권세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지요. 두 화원의 그림은 송석원 시사의 문집인 <옥계청유첩> 앞머리에 실려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양반에 밀리지만, 시를 짓고 그림을 읊미하며 사상을 논하는 저들의 삶은 참으로 귀하게 다가오는군요. 문화적 삶은 늘 향기로운 법이니까요.



이인문 <송석원시회도>, 1791, 종이에 수묵담채 25.6x31.8cm. 개인소장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 1791, 종이에 수묵담채 25x32cm. 개인소장

*도석인물 : 도교에서의 신선과 천녀, 불교에서의 부처와 고승, 나한 등의 인물

** 영모 :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

COMMISSIONERS ▶▶▶ 위원동정



양승목 위원, <민주화 30년의 한국 언론 : 비판과 성찰> 종합토론 사회

양승목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 5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주화 30년의 한국 언론 : 비판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양 위원은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아 발표자, 토론자들과 함께 30여 년 간 한국 언론의 여정에 대한 학술적인 진단과 비판 그리고 남겨진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류춘렬 위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사회

류춘렬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이 5월 12일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광고홍보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류 위원은 사회를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황용석 위원, <19대 대선 기간 언론사 팩트체크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토론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5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9대 대선 기간 언론사 팩트체크의 성과와 과제 : SNU팩트체크를 중심으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 언론정보 연구소가 개설하고 12개 제휴 언론사들이 참여한 공동 팩트체크 플랫폼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활용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재진 위원, <인권위와 언론, 그리고 표현의 자유> 토론회 발표

이재진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인권위와 언론, 그리고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은 이정기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 인권위에 접수된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상식 위원,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발표

이상식 중재위원(대구중재부, 계명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이 5월 19일 제주 국제대학에서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성찰과 용기 : 언론과 언론학의 진정성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대주제 아래, 이 위원은 <유료방송 산업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년 · 주정민 위원, <새 정부 출범과 언론 개혁 방향 및 과제> 토론회 참석

윤석년(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주중재부 중재위원은 5월 30일 광주전남언론학회가 광주전남민주언론연합,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과 언론 개혁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윤석년 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언론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주정민 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NEWS ▶▶▶ 위원회 뉴스

시정권고소위 위원 선출

위원회는 언론 보도내용의 국가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적 침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5월 22일부터 1년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성명	중재부	대표이력
양인석 위원장	서울4	변호사
오성우 중재부장	서울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수 중재부장	서울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기준 중재위원	서울5	(전) 연합뉴스 전무이사
양승목 중재위원	서울6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은경 중재위원	서울7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혁주 중재위원	서울8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여름호 발간

연구팀은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여름호(통권 호)를 6월 1일 발간했다.

제3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종료

교육운영팀은 5월 23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제3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마무리했다. 23일에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과장이 분쟁해결 노하우를 전하며 ADR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25일에는 교육콘텐츠팀 이진아 차장대우가 언론조정·중재절차와 사례를 소개하고 모의조정을 실시해 갈등조정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향상을 도왔다.

제2회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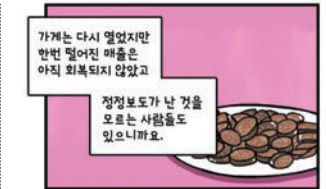
위원회 두 번째 공모전이 개최된다. UCC 공모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 결의 언론분쟁해결사, 언론중재위원회>로 언론보도로 발생한 분쟁해결기구인 위원회를 소개하거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권 침해 및 구제사례를 소개하는 30초 이상 60초 이내의 동영상상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공모 결과는 7월 둘째 주에 발표된다.

제1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언론의 무게

글/그림 최현정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제2회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

UCC공모전



언론중재위원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UCC로 만들어 주세요!



공모전개요



참가자격

- +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 + 개인 혹은 팀으로 응모가 가능(1인당 2개 이내 작품으로 제한)

공모주제

- <우리 결의 언론분쟁해결사, 언론중재위원회>
-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하는 콘텐츠
 - +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권 침해 및 구제 사례

공모형식

- +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모든 영상 콘텐츠 가능
- + 파일형식 avi, wmv, mpeg
- + 규격 30초 이상 60초 이내 동영상

제출방법

- + 1단계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 + 2단계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pac.or.kr)에서 접수 및 확인
(지원 접수 시,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 URL을 기재)

접수기간

2017년 6월 1일(목) ~ 6월 28일(수) [4주간]

결과발표

2017년 7월 둘째주



심사및 시상



- + 1차심사 자체심사를 통해 Top 7 선발
 - + 2차심사 위원회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해 네티즌 심사
 - + 결과발표 7월 둘째주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 시상식 7월 둘째주, 수상자 개별 통지
- ※ 자체 심사점수(70%) 및 네티즌 심사점수(30%)를 종합하여 최종심사

시상내역



시상	수상인원	금액
대상	1(명/팀)	100만원
금상	2(명/팀)	각 70만원
은상	2(명/팀)	각 50만원
동상	2(명/팀)	각 30만원

문의사항 02-397-3082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

※ 본 포스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